

작품 내용

제 목	Ctrl+C, Ctrl+V
내 용	오늘 드디어 우리 반 학급 신문이 나오는 날이었다. 나는 이번 신문에 실을 ‘우리 동네 고양이들’이라는 글을 쓰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다. 학원 숙제를 끝내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의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장 하나를 쓸 때마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고 더 멋진 단어를 찾으려고 국어사전까지 찾으며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했다. 그렇게 쓴 시간만큼 내 글은 무척 소중한 것이다. 오늘 아침, 완성된 내 글이 신문 한면에 실린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이 마구 벅차올랐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여기까지였다. 학교를 마치고 컴퓨터로 숙제를 하다가 내가 쓴 글 제목을 검색해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떤 카페에 내가 쓴 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린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닉네임이었고, 글의 맨 위에는 “내 글1”이라는 황당하고도 뻔뻔한 줄이 적혀있었다. 그 글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었다. 진짜로 글을 쓴 나조차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칭찬을, 내 글을 통째로 훔쳐간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도둑에게 내 글을 가져가는 것은 무척 쉬웠을 것이다. 마우스로 내 글을 선택하고 Ctrl+C, Ctrl+V를 차례대로 누르는 데 걸린 시간은 아마 3초도 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썼던 소중한 글이 누군가의 손가락 까딱임 2번에 너무나 허무하게 도둑맞아 버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결국 참다못해 그 글에 댓글로 “이거 제게 학급 신문에 쓴 글인데 지워주세요”라고 남겼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나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같이 좀 쓰면 어때요? 출처 안 적은 건 미안하지만 좋은 글이라서 가져온 건데 되게 까칠하시네.” 남의 글을 함부로 도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하는 변명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사용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사용하려는 비겁한 핑계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복사해간 것은 눈에 보이는 몇 줄의 글자만이 아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을 써보겠다고 다짐했던 내 용기와, 열정까지 훔쳐간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이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일어난다면 결국 그 누구도 스스로 새로운 것은 만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보는 인터넷 세상은 스스로 피워낸 예쁜 꽃이 아니라, 온통 복사해 온 가짜 꽃들로만 가득 찬 황폐한 사막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통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지갑에 손을 대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며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각, 문장, 그림을 소리 없이 훔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건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당연한 권리처럼 행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고 복잡한 법을 배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 땀을 새우며 흘린 땀방울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인정해주는 것, 남의 노력을 내 것처럼 쉽게 착각해 가져가지 않는 것, 바로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 이 경험을 계기로 다짐했다. 화면 위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가짜 문장들 속에서는 진짜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이제 그 가벼운 손가락을 잠시 멈추자. 다른 사람이 보낸

시간의 무게를 소중하게 지켜줄 때, 비로소 세상에 몇몇한 나만의 진짜 생각과 글도 시작될 수 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나의 손끝으로 직접 채워나가는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짜 반짝이는 저작물이 될 것이다. 나부터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야겠다.